

# 이별

강 형진 作

우리는 수없는 이별을 한다  
5년 전 아버지와 이별하고  
어제는 장인과 이별했다.

친구와 이별하고  
인연과도 이별하고  
시간과도 이별을 한다.

그들의 기억 속에 내가 없음을  
이별이라 정의했지만  
오랜 시간 나의 뇌리에 그들의 잔상이 고스란히 남았다.

그리고 알았다  
그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함이 이별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함이 이별이란 것을.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이별을 하고  
마음으로는 통곡함을 이해할 수 있었다.

어쩌면 우리는  
이별한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시간 이별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